



제주에서 가장 긴 해안 드라이브 코스 제주해맞이 해안도로

허준성 |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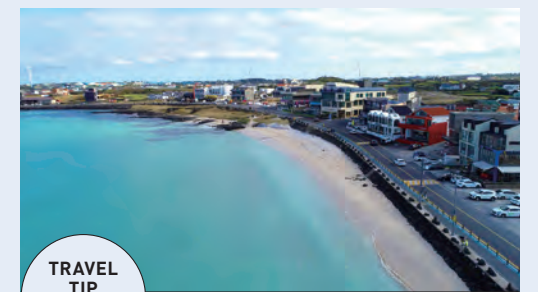
제주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자부하는 곳이다. 최근 제주여행의 핫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부, 김녕해수욕장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어지는 약 30km의 해안도로 정식 명칭이 '해맞이 해안도로'이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동쪽을 끼고 있어서 해맞이 코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루 언제 가도 찐 멋진 풍광을 선사하는 해안도로이다. 해맞이 드라이브 코스를 모두 달리고 나면, 제주에서 놀러왔어 살고 싶은 생각이 깊어질 정도로 제주를 사랑하게 만드는 코스.



에메랄드바다가 손짓하는 김녕 & 월정해수욕장

해맞이 해안도로 드라이브는 공항에서 가까운 김녕해수욕장에서 시작하게 된다. 제주도 어느 해수욕장보다 에메랄드빛이 고운 김녕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수심이 적당해서 가족 단위 물놀이에 빛을 발한다.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스노클링이나 SUP 타기에도 적당한 해변이다. 한적한 곳이 좋다면 김녕에서, 또는 세련되고 핫한 제주 바다가 좋다면 김녕이 아니라 월정에서 드라이브를 시작해 보자. 가장 제주스러운, 날것의 바다를 보여주는 김녕에 비해서 월정해수욕장은 해수욕을 즐기기도 카페거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변이다. 최근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한 달이 멀다 하고 새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오래된 식당보다는 퓨전 맛집과 브런치 카페가 어울리는 풍경.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7-6(김녕해수욕장),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3(월정해수욕장)



TRAVEL TIP

제주 해안도로 드라이브 팁

속도를 내는 드라이브가 아닌 천천히 음미하며 달리는 것이 더 어울리는 코스다. 대신 전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뒤에 차가 많아진다면 먼저 보내고 다시금 여유를 즐겨보자. 전체 구간이 '제주환상자전거길'과 겹쳐 도로 하나를 두고 자전거와 관광객 그리고 차량이 겹치기도 하니 안전운전에 특히나 신경 쓰자.



제주해녀의AtoZ 해녀박물관



해녀는 '숨을 참고 잠수하여,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산소통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취미로 물질을 하지도 않는다. 스킨스쿠버나 요즘 유행하는 프리다이빙과도 구분되는 부분이다. 차가운 바다와 파도를 뚫고 자신의 숨이 허락하는 시간 내에서 물질하는 해녀. 양손에 담아낼 수 있는 만큼으로 생계를 꾸리며 가족을 부양해 왔다. 어쩌면 한라산만큼이나 제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독특한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해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눈'이라고 불리는 수경, 해산물을 담은 '테왁망사리'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해녀 도구들까지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제주도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전화] 064-782-9898

[영업] 09:00~18:00



오션뷰 끝판왕 오름 지미봉

종달리와 철새도래지 하도 사이에 있는 오름이다. 정상에 높이는 410m 정도로 보기보다 오르는 길이 제법 가파르다. 소나무와 관목림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어 오르는 동안은 숲을 오르는 느낌이다가 정상쯤에서 선물처럼 구좌 앞바다가 나타난다.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대표적인 오름. 정상에서는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보인다.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우도'라고 부르는데, 지미봉에 올라 우도를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주소]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 산 2(주차장)





성벽처럼 우뚝 솟아있는 성산일출봉

제주의 다른 오름들과 달리 성산일출봉은 바닷속에서 발생한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졌다. 원래는 섬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퇴적작용에 의해 지금처럼 제주 본섬과 완전히 연결되었다. 180m 정도 높이의 정상에는 20분이면 오를 수 있다. 간단히(?) 오를 수 있는 반면 성산일출봉이 전해주는 제주의 풍경은 묵직하다. 본섬에서 한 발 떨어져서 한라산에서부터 펼쳐지는 제주도의 모습도 이색적이고, 오름 주변으로 드리워 제주바다의 풍광이 시선을 압도한다. 오름 중에서도 가히 최고의 풍경을 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밥그릇처럼 폭 패여 있는 정상 둘레로 99개의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성벽처럼 보여 '성산(城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전화] 064-783-0959

[영업] 매일 07:00~20:00

용암이 그려낸 명품 광치기 해변

해맞이 해안도로의 끝은 이름도 생소한 광치기 해변이다. 언제 찾아도 독특한 해안 모습이 인상적인 곳. 들물(밀물)일 때는 일반 모래 해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지층이 드러난다. 용암이 바닷물에 닿아 빠르게 식으면서 독특한 지층을 만들어 냈다. 야트막하게 고인 물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푸른 하늘이 담긴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기는 물 때표를 참고해서 들물 때보다는 날물(썰물)에 가야 한다. 물이 빠졌을 때 용암이 그려낸 해안선과 멀리 보이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대충 찍어도 SNS의 하트를 마구 이끌어 내는 작품이 나온다.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1(공영주차장)

